

인물

“역사성과 공공성, 오래도록 쥐고 갈 건축적 화두”

인터뷰 - 손지훈
대한민국 건축대전 대상 수상자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건축학은 공학의 여타 학문들과는 달리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인상은 비단 그 자체의 의미만 넘어 지역사회에 풍경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건축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우리학교의 손지훈(건축학 2007) 교수는 ‘2014 정림학생건축상’, ‘제11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 ‘제33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등 짚직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건축가로써 나름의 가치관을 세심하게 확립해가고 있다. 손 교수를 만나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따뜻한 건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뭔가 ‘예술적인 자아’를 지닌 전문가의 모습을 꿈꾸며 건축가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었다. 그저 어린 시절부터 ‘만드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지식을 단순히 암기해서 습득하는 것보다는 실습을 통해 체험해가는 방식에 좀 더 흥미를 느꼈을 뿐이다. 손 교수는, 건축에 대한 거창한 꿈이 있었던 그보다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건축학과를 지원했었다. 하지만 손

군은 문과 출신이었다. 교차지원으로 건축학과 입학엔 성공했지만, 이과적 성격이 짙은 건축학과의 커리큘럼은 손 교수의 마음처럼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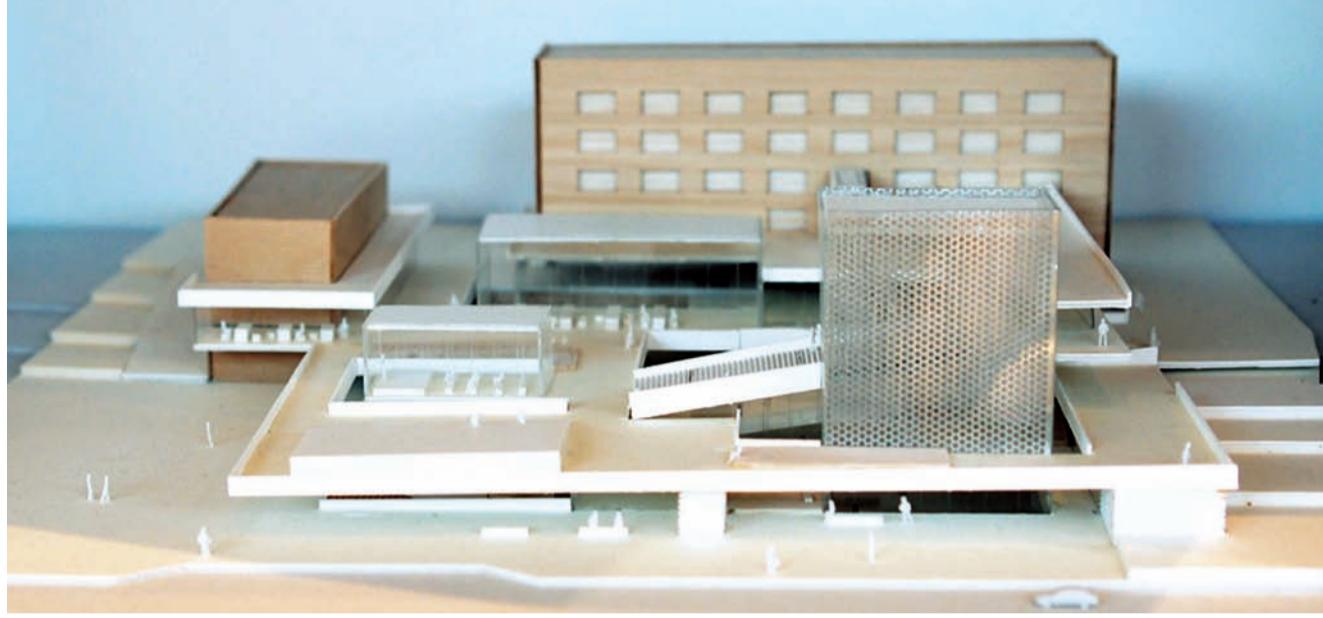
“1·2학년 때는 다른 학생들에게 열등감 까지 느꼈지만, 좋은 선배들을 만나게 돼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가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정석을 좇아 기초부터 차근차근, 손 교수는 이것이 나름의 정공법이라 여기며 성실히 배웠다. 그 덕분에 건축사사무소의 교수님 밑에서 두세 달 동안 건축실무를 맡아볼 무렵이던 3학년 무렵에 손 교수는 “설계가 너무 쉬웠고 ‘그냥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일이 잘 풀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공법’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손 교수의 작품에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실무를 마치고 4학년이 됐을 무렵, 제 학교 프로젝트 작품들에 대해 주위에서는 ‘너무 뻔하고 정석대로만 가는 것 같다’는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평가 속에서 스스로 제 작품을 돌아보니, 정말 개성이 없어 보였고 마치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들었죠.”

방향이 시작됐다. ‘나의 색깔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됐고, 손 교수는 잠시 시간을 갖기 위해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대를 선택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았던 2년의 군 생활은 결과적으로 손 교수에게 큰 보탬이 됐다. 2년간, 그는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작품이 설명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불친절해서 마치 지식자랑을 늘어놓는 것 같은 분



손 교수의 지향하는 건축적 가치관은 ‘건축물의 역사성 보존’과 ‘건축물의 공공성 확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기였다’는 자아진단을 내리고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을 다시 거듭했다.

그리고 작년 겨울을 전역한 손 교수는 자신의 건축적 가치관을 가다듬은 이후, 단독으로 혹은 공동작업으로 여러 대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는 2014 정림학생건축상 대상(신태섭<건축학 2008> 공동작업), 제11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 대상(문재원<건축학 2008>, 김영미<건축학 2009> 공동작업), 제33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국제 일반 공모전 대상(단독작업) 등에서 연달아 작품세계를 인정받으며 지난 고뇌의 시간을 보상받았다.

현재 손 교수는 지향하고 있는 건축적 가치관은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 수상작과 대한민국 건축대전 수상작을 통해 어느 정도 염볼 수 있다.

국제적인 근대문화 유산 보존단체인 도코모모 인터내셔널(Docomomo International)의 한국지부 도코모모 코리아가 주관한 디자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세운상’과 리모델링 앤’에서, 손 교수는 건축물이 지니는 시간성을 ‘시대상과 역사의 보존’이라는 키워드 아래 강조

시킨다. 그는 이미 슬럼화가 진행된 공중 보도 등 최소한의 요소들만 조정하고 전체적인 매스에는 크게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세운상 가가 스스로 완공 당시의 시대성을 운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운상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고려되지 않은, 그래서 종종 ‘해

방 이후 최악의 건물’들 중 하나로 뽑히고는 독불장군 같은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특성 자체가 곧 세운상의 건설 당시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던 건축물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지 지금 시점에서 이질적이라는 이유로 선불리 철거해버리면 건물의 시간성은 영원히 사라져버려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지죠. 그래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미래세대로 유예하고 시간성 자체를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현재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는 재생건축의 사례들이 많은 참고가 됐다고 한다. ‘마포 석유비축기지 공원조성사업’ 등 오래된 구조물을 철거하는 대신 도시의 역사와 보존하는 방식의 건축적 접근을 세운상가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킨 셈이다.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을 통해 ‘건축물의 역사성 보존’을 강조한 손 교수는, 대한민국 건축대전의 대상작 ‘학교로 동네 만들기’를 통해 ‘건축물의 공공성 확장’을 시도한다.

그는 거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이미 도시계획의 중심에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교 구역의 확장과 개방을 통해 학교가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의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장시켰다.

이 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인 학교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

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했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으로는 2002년부터 각급 교육청 주도로 진행된 ‘학교 공원화 사업’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당시의 학교 공원화 사업이 단지 담을 허무는 수준에서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 출품작을 통해 하드웨어적인 건축물 뿐만 아니라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측면도 제안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수의 외부인이 자유롭게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의 감시효과’를 통해 역으로 범죄 발생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됐다.

공공건축에 대한 손 교수의 이런 건축관은 고(故) 정기용 건축가의 ‘무주 프로젝트’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훌륭한 의미를 발산하는 공공건축이 아닌, 동네를 향해 열어놓음으로서 동네와 조화가 되고 공공건축 자체가 동네의 일부가 되는 ‘조화로운 공공건축’의 방향성을 주준히 고민한 결과다.

건축물의 역사성과 공공성은, 아마도 손 교수의 꾸준히 불들고 나아갈 건축적 화두가 될 것 같다. 그는 커다랗고 거대한, 그래서 흡사 건축가의 이름을 아로새기는 듯한 건축물 보다는 시간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는 자연스런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일상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 머무는 좋은 풍경 같은 건축물, 그것이 이제 막 건축가로써 세상에 밟을 내밀고 있는 손 교수의 꿈꾸는 건축이다.

**20대,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강연 전 20분,
학생강연자 Speech가 진행됩니다.

김태원
구글코리아 팀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WED
2014/11/26
PM 5:00**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3F 피스홀

주관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주최 오간지 프로덕션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ORANGE CAFE

후원 미디어
KBS 1TV
KBS 2TV
KBS 3TV
KBS 4TV
KBS 5TV
KBS 6TV
KBS 7TV
KBS 8TV
KBS 9TV
KBS 10TV
KBS 11TV
KBS 12TV
KBS 13TV
KBS 14TV
KBS 15TV
KBS 16TV
KBS 17TV
KBS 18TV
KBS 19TV
KBS 20TV
KBS 21TV
KBS 22TV
KBS 23TV
KBS 24TV
KBS 25TV
KBS 26TV
KBS 27TV
KBS 28TV
KBS 29TV
KBS 30TV
KBS 31TV
KBS 32TV
KBS 33TV
KBS 34TV
KBS 35TV
KBS 36TV
KBS 37TV
KBS 38TV
KBS 39TV
KBS 40TV
KBS 41TV
KBS 42TV
KBS 43TV
KBS 44TV
KBS 45TV
KBS 46TV
KBS 47TV
KBS 48TV
KBS 49TV
KBS 50TV
KBS 51TV
KBS 52TV
KBS 53TV
KBS 54TV
KBS 55TV
KBS 56TV
KBS 57TV
KBS 58TV
KBS 59TV
KBS 60TV
KBS 61TV
KBS 62TV
KBS 63TV
KBS 64TV
KBS 65TV
KBS 66TV
KBS 67TV
KBS 68TV
KBS 69TV
KBS 70TV
KBS 71TV
KBS 72TV
KBS 73TV
KBS 74TV
KBS 75TV
KBS 76TV
KBS 77TV
KBS 78TV
KBS 79TV
KBS 80TV
KBS 81TV
KBS 82TV
KBS 83TV
KBS 84TV
KBS 85TV
KBS 86TV
KBS 87TV
KBS 88TV
KBS 89TV
KBS 90TV
KBS 91TV
KBS 92TV
KBS 93TV
KBS 94TV
KBS 95TV
KBS 96TV
KBS 97TV
KBS 98TV
KBS 99TV
KBS 100TV
KBS 101TV
KBS 102TV
KBS 103TV
KBS 104TV
KBS 105TV
KBS 106TV
KBS 107TV
KBS 108TV
KBS 109TV
KBS 110TV
KBS 111TV
KBS 112TV
KBS 113TV
KBS 114TV
KBS 115TV
KBS 116TV
KBS 117TV
KBS 118TV
KBS 119TV
KBS 120TV
KBS 121TV
KBS 122TV
KBS 123TV
KBS 124TV
KBS 125TV
KBS 126TV
KBS 127TV
KBS 128TV
KBS 129TV
KBS 130TV
KBS 131TV
KBS 132TV
KBS 133TV
KBS 134TV
KBS 135TV
KBS 136TV
KBS 137TV
KBS 138TV
KBS 139TV
KBS 140TV
KBS 141TV
KBS 142TV
KBS 143TV
KBS 144TV
KBS 145TV
KBS 146TV
KBS 147TV
KBS 148TV
KBS 149TV
KBS 150TV
KBS 151TV
KBS 152TV
KBS 153TV
KBS 154TV
KBS 155TV
KBS 156TV
KBS 157TV
KBS 158TV
KBS 159TV
KBS 160TV
KBS 161TV
KBS 162TV
KBS 163TV
KBS 164TV
KBS 165TV
KBS 166TV
KBS 167TV
KBS 168TV
KBS 169TV
KBS 170TV
KBS 171TV
KBS 172TV
KBS 173TV
KBS 174TV
KBS 175TV
KBS 176TV
KBS 177TV
KBS 178TV
KBS 179TV
KBS 180TV
KBS 181TV
KBS 182TV
KBS 183TV
KBS 184TV
KBS 185TV
KBS 186TV
KBS 187TV
KBS 188TV
KBS 189TV
KBS 190TV
KBS 191TV
KBS 192TV
KBS 193TV
KBS 194TV
KBS 195TV
KBS 196TV
KBS 197TV
KBS 198TV
KBS 199TV
KBS 200TV
KBS 201TV
KBS 202TV
KBS 203TV
KBS 204TV
KBS 205TV
KBS 206TV
KBS 207TV
KBS 208TV
KBS 209TV
KBS 210TV
KBS 211TV
KBS 212TV
KBS 213TV
KBS 214TV
KBS 215TV
KBS 216TV
KBS 217TV
KBS 218TV
KBS 219TV
KBS 220TV
KBS 221TV
KBS 222TV
KBS 223TV
KBS 224TV
KBS 225TV
KBS 226TV
KBS 227TV
KBS 228TV
KBS 229TV
KBS 230TV
KBS 231TV
KBS 232TV
KBS 233TV
KBS 234TV
KBS 235TV
KBS 236TV
KBS 237TV
KBS 238TV
KBS 239TV
KBS 240TV
KBS 241TV
KBS 242TV
KBS 243TV
KBS 244TV
KBS 245TV
KBS 246TV
KBS 247TV
KBS 248TV
KBS 249TV
KBS 250TV
KBS 251TV
KBS 252TV
KBS 253TV
KBS 254TV
KBS 255TV
KBS 256TV
KBS 257TV
KBS 258TV
KBS 259TV
KBS 260TV
KBS 261TV
KBS 262TV
KBS 263TV
KBS 264TV
KBS 265TV
KBS 266TV
KBS 267TV
KBS 268TV
KBS 269TV
KBS 270TV
KBS 271TV
KBS 272TV
KBS 273TV
KBS 274TV
KBS 275TV
KBS 276TV
KBS 277TV
KBS 278TV
KBS 279TV
KBS 280TV
KBS 281TV
KBS 282TV
KBS 283TV
KBS 284TV
KBS 285TV
KBS 286TV
KBS 287TV
KBS 288TV
KBS 289TV
KBS 290TV
KBS 291TV
KBS 292TV
KBS 293TV
KBS 294TV
KBS 295TV
KBS 296TV
KBS 297TV
KBS 298TV
KBS 299TV
KBS 300TV
KBS 301TV
KBS 302TV
KBS 303TV
KBS 304TV
KBS 305TV
KBS 306TV
KBS 307TV
KBS 308TV
KBS 309TV
KBS 310TV
KBS 311TV
KBS 312TV
KBS 313TV
KBS 314TV
KBS 315TV
KBS 316TV
KBS 317TV
KBS 318TV
KBS 319TV
KBS 320TV
KBS 321TV
KBS 322TV
KBS 323TV
KBS 324TV
KBS 325TV
KBS 326TV
KBS 327TV
KBS 328TV
KBS 329TV
KBS 330TV
KBS 331TV
KBS 332TV
KBS 333TV
KBS 334TV
KBS 335TV
KBS 336TV
KBS 337TV
KBS 338TV
KBS 339TV
KBS 340TV
KBS 341TV
KBS 342TV
KBS 343TV
KBS 344TV
KBS 345TV
KBS 346TV
KBS 347TV
KBS 348TV
KBS 349TV
KBS 350TV
KBS 351TV
KBS 352TV
KBS 353TV
KBS 354TV
KBS 355TV
KBS 356TV
KBS 357TV
KBS 358TV
KBS 359TV
KBS 360TV
KBS 361TV
KBS 362TV
KBS 363TV
KBS 364TV
KBS 365TV
KBS 366TV
KBS 367TV
KBS 368TV
KBS 369TV
KBS 370TV
KBS 371TV
KBS 372TV
KBS 373TV
KBS 374TV
KBS 375TV
KBS 376TV
KBS 377TV
KBS 378TV
KBS 379TV
KBS 380TV
KBS 381TV
KBS 382TV
KBS 383TV
KBS 384TV
KBS 385TV
KBS 386TV
KBS 387TV
KBS 388TV
KBS 389TV
KBS 390TV
KBS 391TV
KBS 392TV
KBS 393TV
KBS 394TV
KBS 395TV
KBS 396TV
KBS 397TV
KBS 398TV
KBS 399TV
KBS 400TV
KBS 401TV
KBS 402TV
KBS 403TV
KBS 404TV
KBS 405TV
KBS 406TV
KBS 407TV
KBS 408TV
KBS 409TV
KBS 410TV
KBS 411TV
KBS 412TV
KBS 413TV
KBS 414TV
KBS 415TV
KBS 416TV
KBS 417TV
KBS 418TV
KBS 419TV
KBS 420TV
KBS 421TV
KBS 422TV
KBS 423TV
KBS 424TV
KBS 425TV
KBS 426TV
KBS 427TV
KBS 428TV
KBS 429TV
KBS 430TV
KBS 431TV
KBS 432TV
KBS 433TV
KBS 434TV